

농촌지역 조손가정의 특성 및 그 특성들의 관계

조 유 향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요약)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특성들을 찾아냄과 동시에 그 특성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면접 조사였다. 조사대상자는 조손가정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57조손가구의 조부모 1인씩 및 손자녀 1인씩이었다.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정보들을 비롯하여 손자녀의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조손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일상생활동작능력,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 간이정신기능검사, 간이영양상태 조사, 및 낙상 가능지수 등을 측정하였다. 조부모는 대부분 여성이며, 70대의 고령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들은 거의 10년 정도 손자녀를 돌보고 살아왔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 상당수가 경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사일 등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서 만성적인 질환을 지닌 비율이 3/2이상이었다. 그들이 제공받고 싶은 프로그램의 수는 16.5개이었지만,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프로그램은 2.3개에 불과했다.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농촌지역 조손가정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논했다.

[Key words: 손자녀, 조부모, 조손가정]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34-70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번지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유향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yhcho@cdu.kr이다.

서론

지난 20여 년 이상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중심의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손가구의 수는 1995년 35,194가구에서 2000년에는 45,225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 그리고 2010년에는 64,000가구로 노인인구의 증가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12).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부모에게 자녀를 위탁하면서 조손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가족부, 2010).

조손가구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0)의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 중에서 조부와 조모가 모두 생존하여 손자녀를 함께 돌보는 경우는 17.1%에 불과한 반면, 조부모 중 1인이 돌보는 경우가 절대다수(82.9%)를 차지했다. 또 조손가구가 형성된 주요 이유로는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가 과반수(53.2%)를 차지했고, ‘친부모 가출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가 14.7%, ‘친부모의 질병이나 사망’에 의한 경우가 11.4%, ‘친부모의 실직이나 파산’의 경우가 7.6%, 그리고 ‘친부모 취업(맞벌이) 등 경제적 이유’가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조손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 그리고 ‘손자녀의 학업 및 장래 걱정’이 2순위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다보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공부를 도와줄 사람’을 꼽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부처와 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조손가정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편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조손가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0; 여성가

족부, 2010).

우리나라에서의 조손가정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보다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몇몇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서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김오남(2007)은 조손가정의 실태와 과제를 비롯하여 손자녀의 양육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조유향(2009)은 조부모의 양육부담, 정서적 지지 및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도 조손가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더 분명하게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정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어 조손가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조손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조부모의 특성과 손자녀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했고, 특히 조부모의 건강에 관련된 특성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조손가정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총 57가구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였다 (초당대학교, 2010). 면접 대상자는 57가구의 가구주인 조부모 중에서 조부 또는 조모 1인씩 그리고 그들이 양육하는 손자 또는 손녀 1인씩이었다.

먼저 57명의 손자녀 중에서 남아는 30명으로 평균 연령이 13.0세 ($SD=2.0$)이었고, 여아는 27명으로 평균 연령이 14.5세 ($SD=3.2$)이었다. 손자녀의 양육이 조부모에게 맡겨지게 된 계기는 절대다수가 부모의 이혼이었으며 82.5% ($n=47$),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8.8% ($n=5$), 그리고 기타 사유가 8.8% ($n=5$)이었다. 손자녀의 형제관계를 보면, 57명 중에서 ‘독자’인 경우가 45.6% ($n=26$)이었고, 두 명 이상의 형제자매들 중에서 ‘첫째 아이’인 경우가 24.6% ($n=14$), ‘둘째 아이’인 경우가 5.4%

조유향

($n=5$), 그리고 ‘셋째 아이’인 경우가 24.6%($n=14$)이었다.

조부모의 경우 모두 65세에서 79세 사이로 여성이 45명, 평균 연령이 68.3세($SD=6.4$) 그리고 남성이 12명, 평균 연령이 69.2세, ($SD=4.8$)이었다.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손자녀의 수는 평균 1.6명($SD=0.7$)명이었으며, 조사 당일까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고 있는 기간은 평균 9.8년($SD=3.9$)이었다. 조부모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8.8%(57명 중 5명)에 불과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39.8%(57명 중 17명), 그리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61.4%(57명 중 35명)나 되었다. 조부모 특성에 관련된 기타 정보는 결과 편의 초두에 논하였다.

조사자는 본 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제공자(사회복지사) 8명이었으며, 그들이 2010년 12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조손가정 57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면접 형식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도구 및 분석

조사도구는 조부모의 경우 한국의 노인실태조사표를 활용하였으며, 손자녀의 경우 아동스트레스도구를 사용하였다 (보건복지부, 2006; 조유향, 2010). 조사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영역은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특성들이었다. 이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수, 양육기간, 직업, 받고 있는 서비스 수, 서비스 요구도, 서비스 만족도, 양육 대상인 손자녀의 지지 지각, 및 사회적 지지 등이었다.

여기에서 ‘서비스 요구도’는 고영실(2006)이 사용한 척도에서 선택한 8문항(경제적 보조, 학습지원, 가사지원, 손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나 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교통편의, 정서적 지원, 및 양육과 관련된 기술)을 선택했으며, 응답의 형태는 각 항목에 대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사이로 하도록 했다. 서비스 요구도의 점수 범위는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요구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만족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11) 안내서에 나와 있

농촌지역 조손가정의 특성

는 고객만족조사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표에 나와 있는 10개 항목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문항의 반응 형태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 양육대상인 손자녀로부터 지지를 지각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은 고영실(2006)이 사용한 척도에서 선택한 8문항(학업, 좋은 식습관 형성, 좋은 친구 사귀기, 예의바른 행동, 건강 지키기, 규칙적인 생활, 물건 정리 및 자기방 청소, 그리고 집안일 돕기)을 선택했으며, 응답의 형태는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 (1점)’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 (5점)’사이로 하도록 했다. 손자녀의 지지 평가의 점수 범위는 8-4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손자녀의 양육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고영실(2006)의 연구에서 추출한 여섯 개 항목에 대하여 지지가 있을 경우 1점, 없을 경우 2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6-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영역은 조부모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들이었다. 이들은 주관적 건강 상태, 급성질환이나 만성질환 여부, 흡연 및 음주 여부, 규칙적 운동 및 건강검진 수검 여부,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우울 증상, 영양 상태, 및 낙상 등이었다.

여기에서 일상생활동작능력(ADL, activity of daily living)은 옷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7개 영역에서 완전 자립의 경우 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2점, 그리고 완전 도움이 필요할 경우 3점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다 (정경희 등, 2012; 진행미·강철구, 2007). 총점의 범위는 7-21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자립적인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은 시장보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돈 관리, 집안수리, 기구 사용과 집안일 하기 등 11개 영역에서 각 영역마다 혼자서 가능하면 0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면 1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2점, 전혀 혼자서 불가능하면 3점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다 (진행미·강철구, 2007). 총점의 범위는 0-33점으로 8점 이상일 때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

조유향

려워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인지기능은 한국판 간이인지기능검사(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로 측정했다. 이는 30점 만점으로 24점 이상일 경우 정상, 20-23점은 치매를 의심해보는 수준, 그리고 그 이하는 치매 상태 등으로 해석한다 (이동영 · 김기웅 · 윤종철, 2003).

우울 증상은 한국판 노인우울증평가척도의 축약형(SGDS-K: short form of GDS)으로 측정했는데, 이는 30문항의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15문항으로 축약시킨 척도이다 (이현주 · 강상경 · 이준영, 2008). 각 문항에 대하여 예(1점)와 아니오(0점)로 답하므로 점수의 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보통 8점 이상일 경우 정상, 6-7점은 가벼운 우울, 4-5점은 심한 우울, 그리고 3점 이하는 매우 심한 우울증이라고 해석한다.

노인들의 영양 상태는 Vellas 등(1999)의 간이영양사정표(MNA: Mini Nutrition Assessment)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는 신체계측, 일반조사, 식이조사, 건강과 영양상태의 본인평가의 4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는 최대 30점으로 17점미만은 영양불량(malnourished), 17-23.5점은 영양불량위험상태(at risk of malnutrition), 24점 이상은 양호(well nourished)한 상태로 판정한다 (이혜옥 등, 2010).

낙상은 福島県(2007)의 낙상가능지수로 측정했는데, 점수의 범위는 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영역은 손자녀의 특성이었다. 이들은 손자녀의 부모가 어떠한 이유로 자녀 양육을 맡기게 되었는지의 배경, 손자녀가 조부모와 어느 정도 친밀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손자녀의 학교 성적은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조사내용의 분석방법은 조손가정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을 정리했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손자녀 양육 환경

먼저 조손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현재 그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는 평균 16.5개($SD=5.2$)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류는 2.33개($SD=1.2$)로 원하는 수의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조부모들의 서비스 요구도는 평균 31.0점($SD=4.6$)으로 질문 영역의 대다수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8점($SD=5.2$)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 양육대상인 손자녀로부터의 지지를 지각하거나 평가하는 수준은 평균 16.5점($SD=5.2$)이었는데, 이는 노인들이 손자녀 양육하면서 손자녀의 태도나 습관, 행동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점수도 평균 9.0점($SD=1.3$)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손자녀 양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와 지지를 현실적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노인들 중에서 농사일이나 시간제 근무 등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40.4%($n=23$) 정도였다. 이는 근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30%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통계청, 2010). 이는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마 농촌지역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성주, 2008).

이제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학교성적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좋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0.4%($n=23$), ‘보통이다’가 28.1%($n=16$), ‘나쁜 편이다’가 31.5%($n=18$)이었다. 또 손자녀들에게 조부모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깝다’고 응답한 경우가 2/3이상(68.4%, $n=39$)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통이다’는 응답(22.8%, $n=13$) 또는 ‘가깝지 않다’는 응답(8.8%, $n=5$)을 했던 비율도 낮지 않은 실정인데,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조부모와 더 가까워지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손자녀의 양육 환경에 관련된 응답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 조손가정은 거의 공통적으로 경제적 지원, 손자녀의 교육 문제 도움,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지원, 정서적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성주, 2008). 물론 농촌이나 도시에 상관없이 또 조손가정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정서적 지원 등이지만 (Choi, 1995), 농촌지역의 조손가정은 손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들이 손자녀의 양육 책임을 맡고 있었을 때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utchler, Baker, & Lee, 2007).

조부모의 건강

조부모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표 1> 참조),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가에서는 ‘건강하다’는 답변은 35.1%인 반면, 43.9%가 ‘건강하지 못하다’도 답했듯이 건강이 좋지 않은 조부모가 많았다. 조사 당시 급성질환으로 케어를 받고 있는 비율은 3.5%($n=2$)로 높지 않았지만,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비율은 68.4%($n=39$)나 되었다. 물론 건강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으로 흡연 비율(12.3%)이나 음주의 비율(15.8%)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 노인의 절대다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비율(35.1%)도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도 절반(49.1%)에 미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다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예, 조유향, 2009)와 비교할 때 건강관리를 더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표 2>에 의하면, 우울증 지수는 평균 8.0점으로 정상 범주에 해당되지만,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노인들의 일부는 경미한 상태의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간이인지기능검사의 결과도 평균 25.3점으로 ‘정상’ 범주에 해당되지만,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일부는 치매 상태의 초기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의 낮은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정신기능에서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농촌지역 조손가정의 특성

일상생활동작능력(ADL)의 점수는 평균 7.3점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거의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된다. 그러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점수는 8점 이상이면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노인들의 점수는 평균 11.5점으로 다소 어

<표 1>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 (a)

항목	응답	n (%)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20 (35.1)
	보통	12 (21.1)
	좋지 않음	25 (43.9)
만성 질환	유	39 (68.4)
	무	18 (32.0)
급성 질환	유	2 (3.5)
	무	55 (96.3)
흡연	예	7 (12.3)
	아니오	50 (87.7)
음주	예	9 (15.8)
	아니오	48 (84.2)
규칙적 운동	예	20 (35.1)
	아니오	37 (64.9)
건강검진	예	28 (49.1)
	아니오	29 (50.9)

<표 2>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 (b)

측정 변인	M (SD)
우울 지수 (SGDS-K)	8.0 (5.0)
인지 기능 (MMSE-K)	25.3 (5.1)
일상생활동작능력 (ADL)	7.3 (1.9)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 (IADL)	11.5 (3.9)
영양 상태 (MNA)	25.9 (2.9)
낙상가능 지수	3.2 (1.1)

조유향

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편 영양평가(Mini Nutrition Assessment)점수는 25.9점으로 거의 '정상'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낙상지수는 평균 3.2점이었는데, 이는 낙상이 가능한 노인들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성들의 관계

<표 3>에 의하면, 먼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간이 더 길수록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가 더 많다고 답했다. 또 손자녀의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노인의 입장에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자녀의 지지나 협조 수준이 높지 않는 등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영양 상태도 더 좋지 않은 편이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처럼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상태가 쉽게 약해지고, 사회활동이나 재정 문제 등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된다 (Butler & Zakari, 2005).

또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수가 더 많은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아서인지 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 일상생활동작능력이나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 점수가 낮은 노인이거나 영양상태가 더 좋지 않은 노인일수록 손자녀의 양육에서 어려움이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역시 인지기능상태가 더 좋지 않은 노인이거나 손자녀의 양육에서 어려움이 더 많다고 지각하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게다가 일상생활동작능력,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 낙상, 영양상태 등 건강하고 관련된 지수들끼리의 상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론

우리나라는 최근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0)의 조사에 의하면, 조손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전체 조손가정의 1/3을 차지

농촌지역 조손가정의 특성

<표 3> 변인들의 상관관계 (N=57)

	2	3	4	5	6	7	8	9	10	11	12
1	.12	.40 **	-.15	.18	.07	-.08	-.34 *	.20	.01	-.28 *	-.07
2		.08	-.13	.27 *	.29 *	-.07	-.20	.21	.13	-.13	-.02
3			-.02	.08	.10	-.30 *	-.11	.08	-.19	-.11	.11
4				-.69 ***	-.58 ***	.44 ***	.45 ***	-.01	-.06	.37 **	-.27 *
5					.78 ***	-.40 **	-.47 ***	.13	.10	-.27 *	.07
6						-.48 ***	.47 ***	.05	.16	-.35 **	.24
7							-.40 **	-.08	-.06	.13	-.11
8								-.27	-.22	.44 ***	-.21
9									.05	.01	-.13
10										.04	-.05
11											-.41 **

주: 1 손자녀 양육 기간 (단위: year)

2 양육하는 손자녀의 수

3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수

4 간이정신기능검사 (MMSE-K)

5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6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7 낙상가능지수

8 간이영양사정 (MNA)

9 서비스 만족도

10 사회저지지

11 손자녀로부터의 지지 평가

12 서비스 요구도

* $p < .05$ ** $p < .01$ *** $p < .001$

조유향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노인들은 평균 10년 정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손자녀의 연령을 고려할 때 유아시절부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양육과 함께 교육도 담당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며, 본인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양육의 대상인 손자녀도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 마디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나 손자녀 모두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매우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손가정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가족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영실 (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연구*, 16, 59-84.
- 보건복지부 (2006). 국민건강영양조사표 및 노인실태조사표.
- 보건복지부 (20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http://www.mw.go.kr>).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2010. 12. 14)
- 이동영 · 김기웅 · 윤종철 (2003). 정보제공자 보고형 설문지와 간이 인지기능 검사의 치매선별력 비교: SIRQD versus MMSE-K. *용인정신의학보*, 10, 67-77.
- 이성주 (2008). 농촌 조손가정의 양육부담과 복지욕구 및 대책 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 강상경 · 이준영 (2008). 노인우울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과 건강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 1129-1145.
- 이혜옥 · 이정숙 · 신지원 · 이금주 (2010). 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를 이용한 건강증진센터 내원 노인의 영양상태 판정.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16 (2), 122-132.
- 정경희 외 13인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2-0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행미·강철구 (2007). 재활운동 실천 후 양로시설 여성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및 체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1 (2), 77-90.
- 조유향 (2009). 농촌지역 조손가정 조부모의 건강과 영양상태. 농촌의학·지역보건, 34 (2), 244-255.
- 조유향 (2010). 농촌 조손가정의 양육, 건강 및 영양중재서비스의 효과. 농촌의학·지역보건, 35 (3), 274-286.
- 초당대학교 (2010). 조손가정 맞춤형가례관리사업 (내부자료 1-4).
- 통계청 (2010).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0. 9. 29. 발표)
- 통계청 (2012). 2011년 인구통계.
- 福島県 (2007). 高齢者のための介護保険の案内.
- Butler, F., & Zakari, N. (2005). Grandparents parenting grandchildren: Assessing health statu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2 (3), 43-54.
- Choi, S. (1995). Social welfare policy for elderly Koreans. In S. Choi & H. Suh, *Aging in Korea: Today and tomorrow* (pp. 121-140). Seoul: Federation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ies.
- Mutchler, J., Baker, L., & Lee, S. (2007). Grandparents responsible for grandchildren in native-American famil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8 (4), 990-1009.
- Vellas, B., Guigoz, Y., Garry, P., Nourhashemi, F., Bennahum, D., Lauque, S., & Albarede, J. (1999). The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and its use in grading the nutritional state of elderly patients. *Nutrition*, 15 (2), 116-122.

Characteristics for the Grandparent-Headed Families

Yoo-Hyang Cho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Muan, Korea 534-701

The purpose of this survey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for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e interview was administered to 57 grandparents and their grandchildren who were recipients of the government-supported program o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ome socio-demographic informations on the grandparents-headed families, levels of stress or burden owing to caring for the grandchildren, quality of services given to the grandparents-headed families, and health-related indices such as IDL, IADL, MMSE, mini nutritional assessment, and fall index were measured from the grandparents. Most grandparents were female and septuagenarians, and had a low-level educational background. They had cared for their grandchildren for almost 10 years, and the longer they cared for them, the worse their health conditions were. Some of them should earn extra money thru farm-working in order to overcome financial hardships. Almost two-thirds of them had suffered from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welfare services they wanted to receive from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was over 16 but the number of services that had been receiving was 2.3 on average. It was discussed that we need to show more societal concern for the grandparent-headed families.

(논문접수일: 2012년 10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20일)

(논문게재승인일: 2011년 11월 30일)